

&gt;&gt;&gt; 포스데이타

## 토틸 IT서비스 기업 도약... 와이브로·하이패스 등 신성장 사업 통해 성장 박차

포스데이타는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 계열의 정보기술 전문기업으로 지난 1989년에 설립됐다.

보통 그룹이나 대기업의 IT서비스 계열사들이 모기업에 의존해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 등을 통해 성장했듯이 포스데이타도 포스코를 비롯해 계열사들의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포스데이타는 최근 주력 사업인 시스템통합(SI)과 아웃소싱외에 와이브로, 하이패스와 같은 신성장 사업의 육성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노리고 있다.

### 신성장 동력, '와이브로'

포스데이타는 올해 5월 고객지향, 실행중시, 도전추구, 인간존중, 윤리준수로 구성된 핵심가치를 새롭게 선포하고 내재화·실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포스데이타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저없이 와이브로를 꼽고 있다.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만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와이브로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포스데이타는 국내는 물론,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세우고 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토종 와이브로인 3G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서 포스데이타의 그간의 노력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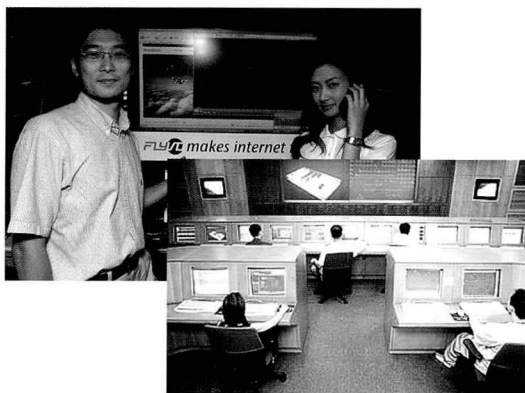
포스데이타의 와이브로 사업범위는 기지국, 제어국 등 시스템부터 단말 등 와이브로 통신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및 공급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와이브로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실제 제품 생산에 들어갔으며, 해외통신사업자들과 장비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와이브로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지난 4월 와이브로 생산공장 설립

포스데이타는 와이브로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기존 시스템통합 부문에 IT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IT 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글로벌 IT기업으로 탈바꿈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외에도, 포스데이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하이패스 구축사업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도로공사가 발주한 전국 확대사업을 연이어 수주한 포스데이타는 그 동안 외곽순환도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량 탑재용 단말기분야에서는 최근 도로공사의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 상용 단말제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올 연말경 이 칩을 적용한 차량탑재 단말기를 선보이는 한편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기능이 결합된 컨버전스 형 단말기를 선보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매출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IT서비스 사업도 와이브로, RFID, 홈 네트워크 등과 같은 신기술들을 접목해 서비스 모델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극대화와 관련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단발성 프로젝트 수주방식이 아닌 투자형, 선제안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u

시티, 철도, 도로교통 등과 같은 SOC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포항시와 u시티 사업 협력 체결

포스데이타가 올 들어 힘을 싣고 있는 u시티에서는 포항시와 u시티 사업 협력 관계를 체결한데 이어 충주시가 추진하는 충주기업도시의 u시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올 하반기 충주기업도시의 u-시티 전략계획(USP)과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신 인프라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u-시티에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IT아웃소싱 분야에서는 각 분야별 시스템들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로 대외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세계 최고 수준의 포스코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패키징화 해 대외 사업에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3



## 포스데이타, 와이브로 체험관 오픈

포스데이타는 자사가 개발한 와이브로 솔루션의 검증 및 시연을 위해 지난 2월 와이브로 체험관 '플라이보 센터'를 오픈했다. 이 센터에서는 와이브로 기지국, 제어국을 비롯한 시스템 장비와 단말기들의 연동테스트, 검증 활동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을 비롯한 외부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시연과 파트너의 시스템 운용 교육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동시에 펼치고 있다.